



## 남경필 지사 “여성이 마음껏 능력 펼치는 경기도 만들겠다”

8일 수원 道문화의전당서 제32회 경기여성의날 기념식 열려

‘제32회 경기여성의날 기념식’이 6월 8일 오후 1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렸다.

‘경기여성의날’은 도내에서 각기 다르게 활동하던 여성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경기여성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행사다. 경기도는 1985년 5월 30일 전국 최초로 경기여성의날을 지정했다.

올해 기념식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희망이 넘치는 경기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과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대운·박옥분·김종찬·이순희·안혜영 도의원, 김양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언론사 대표, 여성단체 회원 및 다문화여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제가 도지사 하면서 몇 번 스스로 뿌듯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여기 계신 박

옥분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발언했을 때다. 박옥분 의원님이 ‘경기도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이 드디어 10%를 넘었다’며 칭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 후면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여성이 되는 세상도 곧 오리라고 생각한다. 여성들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정을 하고 있다. 4개의 정당이 싸우지 않고 힘을 모으다 보니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며 “그 결과 전국 일자리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본청의 빛도 거의 청산했다”고 말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특히 올해는 남경필 지사님과 도의원님들의 예산 지원과 경기도 여성들이 함께해 ‘경기여성의전당’이라는 집을 지었다”며 “이제는 조직 강화

를 통해 글로벌한 시대에 맞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의 2016년 사업실적 소개를 시작으로, 신현호 화백의 식전공연, 개회식, 유공자표창 등이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초·중생으로 이뤄진 ‘자스민팀’, 남성 성악 앙상블 팀 ‘킨투스’, 뮤지컬 배우 박해미, 경기팝스앙상블 등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 조신현 작가 ‘선의흐름-자연(도자)’ 대상

제47회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100개 작품 수상...48점 전국대회 진출

9월 열릴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

고양시, 장려상은 104점을 받은 화성시와 87점을 기록한 안성시가 각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목·철, 도자, 금속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들이 품질수준, 작품성, 상품성, 디자인, 창조성 및 저작권 보호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으며 특선 이상을 받은 48개의 작품은 오는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제 47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반만년 역사의 혼과 얼이 담긴 공예품은 우리민족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결정체”라며 “앞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공예품의 가치를 적극 발굴해 우리 공예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을 통해 총 27회의 최우수상 수상, 17회의 우수상 수상의 기록을 남긴바 있다. 지난해 대회에는 총 44개의 작품을 출품, 이중 33점이 작품이 입상해 단체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 도, 하반기 청년·대학생 인턴 183명 채용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4대 보험 지원

본인 희망에 따라 공공기관 선택 근무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청년인턴 사업에 이어 하반기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청년 및 대학생 183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현장근무를 통한 업무경험과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요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6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작년과 달리 인턴기간을 확대해 여름방학 2개월과 2학기 4개월 기간을 합친 총 6개월 동안 183명의 인턴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에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도청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배치돼 지정된 멘토와 함께 도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도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사전 수요조사 및 수행업무를 받아서 청년인턴에게 해당 담당업무를 부여할 방침이며, 이력서 작성, 경력관리, 사무(기획)실무 교육, 적성평가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취업특강과 취업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생각을 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영 아이디어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 등을 통해 팀별 과제연구 및 발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 발표자는 시상금 지급과 함께 도정 아이디어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멘토(부서 담당자) 사전 교육, 사업 담당자와 인턴과의 정기적 소통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턴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모집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이며,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자 추천 및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근무부서 배치 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인턴들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7910원)가 지원된다. 월 만근시 4대 보험 공제 후 162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본인 희망하는 곳에 지원 가능하며 도청(남부청·북부청 등)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경기도 대표 우수 공예품의 판로 개척과 공예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개최한 ‘제47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8일 오후 2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 한의병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심사위원장인 이하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명예교수, 대상 수상자인 조신현 작가를 비롯한 수상자 등 관계자 100여명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목·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 분야의 공예품 492점이 출품돼 우수성을 겨뤘으

며,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선과 면의 조형미를 구현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천시 조신현 작가의 ‘선의흐름-자연(도자분야)’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이광수 작가의 ‘무제(목·철 분야)’가 금상을, 홍연화 작가(성남)의 ‘종이와 나무의 인연(종이 분야)’과 김판기 작가(이천)의 ‘화병(도자 분야)’가 은상을 차지하는 등 총 100개의 작품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상은 은상 20작, 장려상 20작 등 총 169점을 획득한 성남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147점을 획득한 이천시와 140점을 얻은